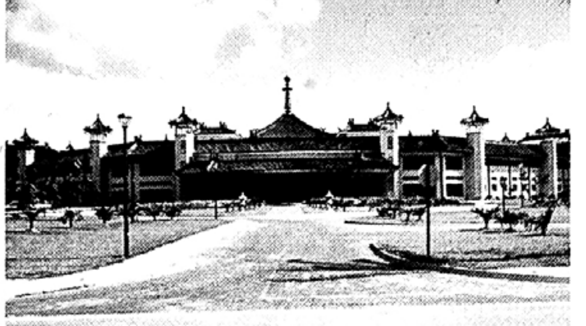
아프리카 포교 전초기지 … 남아공 남화사

불교불모지에 '불법 씨앗'



◇아프리카 불학원 학인들이 축구경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위). 아프리카 포교의 전초기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남화사 전경.

대만 불광산사 93년 아프리카 불학원 등 설립

비구·비구니 14명 탄생·학인 60명 공부중

흑인 스님들이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에 불법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위치한 흑진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구 약 4500만명의 이 나라는 흑인이 75%, 백인이 14%, 혼혈 및 아시아계가 11% 가량을 차지한다. 국민의 80% 가량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전통신앙이나 힌두교, 유대교나 이슬람교 등 소수 종파도 있다.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곳에 아프리카 포교의 전초기지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론크호스트스프리트(Bronkhorstspruit) 시의 조용한 컬츄라 공원내에 자리잡고 있는 남화사(南華寺, 주지 혜례). 이 지역에 세 곳의 포교당과 세 곳의 선원, 여성 수행센터, 어린이집 등을 갖춘 남화사가 아프리카 전법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교육기관이 바로 아프리카 불학원(The African Buddhist Seminary)이다.

지난 94년 문을 연 불학원에는 브라질, 콩고,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뉴질랜디, 탄자니아, 짐바브웨에서 온 60여명의 학인(사미, 사미니)들이 공부하고 있다. 120명의 학인을 수용할 수 있는 불학원은 사무실과, 강의실, 요사채, 스터디 룸, 명상 및 독경실, 도서관, 체육관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불교를 널리 알리고, 교육을 통해 스님의 자질을 기르며,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아 지구촌에 정토를 건설한다'는 교육이념을 가진 불학원은 불교사, 불교 의식, 중국어, 독경, 컴퓨터 기술, 명상, 경전 공부, 체육학, 영어, 운력 등의 내·외전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친다. 3년간의 집중적인 입문과정은 휴일을 불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이 과정이 끝나면 4년간의 경전공부와 집중 수행을 마친 후 구족계를 받고 스님으로서 현지 포교에 나서게 된다.

남화사가 아프리카 포교의 첫발을 내디딘 해는 1992년. 대만 불광산사(방장 성운스님)에서 파견된 혜례스님이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했다. 93년 10월, 브론크호스트스프리트 시의회가 기부한 15헥타르의 땅에 남화사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아프리카 불학원 및 포교당 건립에 들어갔다.

남화사는 10여년의 짧은 전법기간동안 신도 800여명의 사찰로 거듭났다. 97년, 처음으로 21명의 남아공 및 탄자니아 흑인들이 사미 10계를 받았으며, 같은 해 탄자니아 학인 17명이 출가했다. 98년에는 60명의 흑인 및 백인이 삭발의식을 가졌으며, 현재 14명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이 탄생돼 아프리카 전법의 횃불을 밝히고 있다.

남화사 주지 혜례 스님은 "아프리카 불학원은 모든 종족의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불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한다. 나아가 학인들이 전쟁과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법사들이 되도록 준비시킨다"고 밝혔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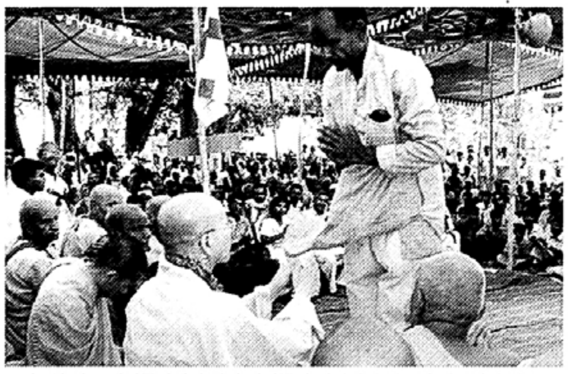
로드붓다클럽, 1만5천명 수계

힌두교도 달리뜨 출신 대거 참여

9일 인도 북부 하리야나주 꾸룩셰뜨라에서는 로드붓다클럽 주최로 수계식이 거행됐다. 약 1만오천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수계식 역시 힌두교도였던 달리뜨(Dalit, 지정카스트)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수계법사인 붓다쁘리야 라훌(Buddhapriya Rahul)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거 수천년 동안 달리뜨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힌두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달리뜨들의 원래의 종교인 불교로 되돌아가서 과거의 긍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수계식에는 로드붓다클럽 전국 회장인 우디뜨 라즈(Udit Raj)씨와 전인도 지정카스트·지정부족 연맹의 하리야나주 대표인 까람비르 싱(Karamveer Singh)씨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했다.

한편 이번 수계식이 열린 꾸룩셰뜨라에는 고대의 불교 유적인 세 개의 대탑(大塔)이 매몰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어 불교계와 고고학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르빤츠 마헨다르 싱(Sarpanch Mahendar Singh)씨는 이 날 발표한 하리야나주의 미발굴 불교유적에 대한 보고서에서 꾸룩셰뜨라의 땅 속에 묻혀있을 불교 유적의 발굴작업에 민간인들의 관심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1일 인도 메인푸리에서 열린 석가족 수계식에게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수계제자에게 5계 수지를 당부하고 있다.

석가족 3천여명 수계

조안푸르마을 법당 개원도

석가족 청년불자회(Youth Buddhist Society, 회장 수레쉬 짠드라 보스)는 보드가야 차크마사원 주지 프리야팔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을 모시고 1일 메인푸리(Mainpuri)에서 수계식을 열고 석가족 3천여명에게 수계증을 수여했다. 메인푸리 수계식은 조안푸르 마을의 법당 개원식과 함께 열렸다. (사진=JTS 제공)

미국 유태인 불교개종 늘어

카메네츠씨 "대부분 계율 도외시 껍데기 신자"

◇1990년 달라이 라마의 초청으로 유태교 대표 8인과 함께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한 카메네츠씨(오른쪽)의 달라이 라마 인터뷰 장면.

미국에서 유태인 불교신도가 늘고 있다.

'주부(JUBU)'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불교를 어릴 적부터 배워야 할 계율이나 구체적 신행 내용이 없는 '부담 없는' 종교로 보고 매력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불교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윤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껍데기 신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태교와 불교의 두 종교의 전통을 비교한 책 〈연꽃 속의 유태인(The Jew in the Lotus)〉(Aronson Jason 출판사)의 저자인 학자 겸 시인 라저 카메네츠(Rodger Kamenetz)씨에 따르면, '주부'를 비롯한 현대 미국의 불교 개종자들은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핵심을 도외시하고 형식만을 믿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미국식 불교'다.

〈연꽃 속 유태인〉은 망명 중인 달라이 라마에게 이국 땅에서 수천년간 믿음과 전통을 유지해온 유태인들과 대비하며,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티베트 불교) 신앙을 간직하고 생존할 것인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유대교 생존의 비밀이 의식과 기도에 달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점차 미 주류사회에 진입하면서 유태교-개신교-불교 등 종교간 대화도 늘고 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8. 불교 회화의 기원

부처님께서 재세하시던 2500년전의 고대인도사회를 복원할 수 있을까? 복원할 수 있다면 초기불교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의 도시상황에 관해서 비교적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책으로는 영국에 최초로 성립된 팔리불교성전협회를 이끈 리즈 데이비스(1843-1922)의 책, 〈부디스트 인디아(BUDDHIST INDIA, 1903)〉라는 고전적 명저가 있다. 저자가 인도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씌여진 이 책의 제5장 '거리들'의 서술에 의하면 고대 인도는 회화와 조각이 고도로 발전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왕궁과 대신, 부호의 저택, 거리의 곳곳은 다채로운 회화와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불교회화의 기원과 스타일은 이와같은 기존의 고대인도의 회화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리즈 데이비스는 이 책에서 고대인도의 직업군을 분류하면서 화가들을 따로 다루면서 "화가들, 그들은 대부분 염료업을 겸했다. 집들의 목조부는

인도 등 수많은 불교유적

부처님 일생이 제1소재

매우 잘 제조된 호분도료(胡粉塗料)를 바르고 프레스코화를 그려넣어 장식했다. 여기에는 인물상이나 풍속, 신화를 주제로 한 회화를 그려넣었으며 마가다와 코살라왕이 소유한 오락(娛樂)의 집에도 화려한 그림이 그려졌다"쓴다. 또한 당시의 화가들은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교회화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대인도의 화가들, 염직공, 도료생산자들의 존재에도 주목해야할 것이다.

불교회화의 기원과 무엇이 그려졌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다만 초기경전과 율장의 관련기사에 의해서 이미 부처님 재세 당시, 건립된 불교사원에 다양한 내용을 가진 회화가 그려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성과와 유물의 평가에 의한 불교회화 기원의 정확한 편년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는 다만 다만 불교회화의 기원과 제재(提題)를 하나의 전승으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기사들은 아무래도 불교교단에 전해지는 하나의 전승이겠지만 불교성립의 최초기부터 사원의 장식에는 다양한 소재를 내용으로 하는 회화가 장엄과 교육의 목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전문적인 화가(畵工) 집단이 있었으며 부처님 개인은 무슨 내용의 그림을 어디에 그려야할 것인지 세밀하게 자문하고, 그 그림의 보호를 위해 승단을 감독하는등의 미술적인 소양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읽혀진다. 의정(義淨)삼장이 710년 역출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권15에 실린 다음의 이야기는 급고독장자(Anātha pindka)가 기원정사(Jetavana)를 승단에 기증한 직후의 일이다.

급고독장자는 동산에 기원정사를 지어 바친 뒤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단청을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내가 장식을 해야겠다." 곧 부처님께 가서 사뢰니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허락을 듣고는 여러 가지 채색을 모으고 화공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채색은 이 절을 단청할 것이요."

화공이 물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릴 것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으니 마땅히 부처님께 가서 물어봐야 겠소." 부처님께 사뢰니 무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문 양 쪽에는 집장야차(執杖夜叉)를 그리고/다음 곁으로 한 면에는 큰 신통변(神通變)을 그리고/또 한 면에는 오취생사지윤(五趣生死之輪)를 그리고/처마 밑에는 본생사(本生事)를/불전의 문 옆에는 화만(華?)을 가진 야차를/강당에는 노덕비구가 법요를 선양하는 것/식당에는 음식을 받들고 있는 야차를,/창고문 옆에는 보배를 가진 야차를/수각에는 물병을 가진 용이 기묘한 영락을 걸친 것을/욕실과 화당(火堂)에는 천사경(天使經)의 법식에 의한 것과 아울러/여러 가지 지옥의 변상(變相)을 그리고/요양실(療養室)에는 여래가 친히 병인을 간호하는 것을/대소변을 보는 곳에는 무서운 송장을 그리고/방안에는 마땅히 백골을 그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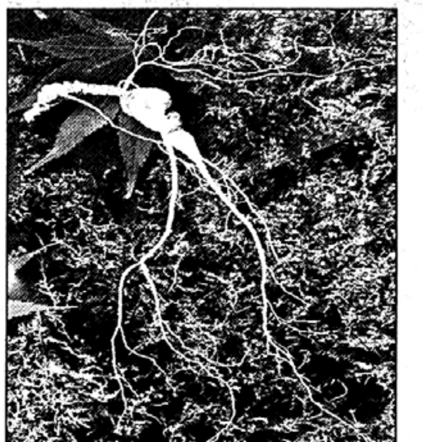
이때 장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절하고 물러나 가르침대로 단청하여 그림을 완성했다.

▩ 경학회 회주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g)
(주)수신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차 골드	98.82
(주)한국자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 백두	16.52
(주)한국자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해피니스	7.47
(주)바이오젠코리아	고려가시오가피	15.49
파진바이오(주)	경희가시오가피	21.32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실크오가피Q	검출안됨
대전충남염소농협	토종가시오가피	검출안됨
고려인삼과학	토종야생가시오가피	7.00

※상기함량은 각 제품 1g에 들어있는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입니다.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1회복용분)
(주)수신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4957.75
파진바이오(주)	진생성장원	504.90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입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래들어 우후죽순으로 오가피 혹은 가시오가피를 사용했다는 제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원료가 없는 것을 알고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들제품들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분석해봤습니다. 그결과는 너무나 경악스런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착오가 아닐까 재차, 삼차 분석해봤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칸토사이드 D(Acanthoside D = Eleutheroside E)란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삼고있는 오가피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오가피의 제품은 가짜입니다.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오가피가 좋다고 선전해오던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시오가피가 다른 오가피들보다 월등하게 좋으며, 그 이유로 아칸토사이드 D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곤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저회제품보다 이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오가피가 비쌀이유가 없다면서 저회제품보다 훨씬 싸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회제품과 같은 양의 오가피를 섭취할수 있으려면 표에서 보실수 있듯이 몇배에서 몇십배나 되는 양을 더 먹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싼것입니까?

이 실험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업주께서는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귀사의 제품과 저회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가기관에 공동의뢰하여 공개적으로 실험할 것을 제의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게재된 실험결과는 저회 실험실만이 아니라 국립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실험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비자여러분께서는 오늘 게재된 제품외에 다른 오가피제품이 있다면 저회에게 실험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무료로 성분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수확하지도 않으면서 오가피제품이라며 판매하는 제품이나 겨우 몇천평에 불과한 재배지를 몇만평, 몇십만평으로 부풀려 광고하는 제품, 북한산야생이라 훨씬 좋다는 제품들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품질은 정직한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의 모든 오가피제품을 검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 올림.

문의전화 (02)447-9114